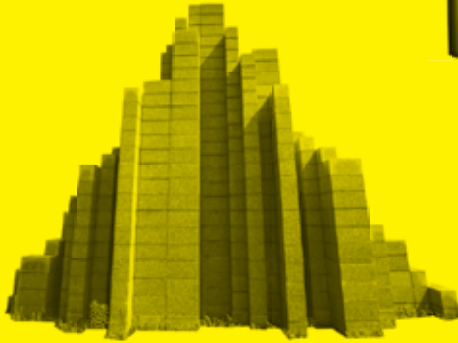


# 김포국제 조각공원

—  
Guide Book



GIMPO  
International  
Sculpture Park

# CONTENTS

김포국제조각공원은?	03
공원 안내도	04 - 05
작품 · 작가 소개	
스스무 신구   우제길	06
다니엘 뷔렌   장 피에르 레이노   고조 니시노   솔 르윗	07
조성묵   줄리안 오피   박상숙   정대현	08
김방희   유영교   신현중   빔 델브와	09
댄 그레이험   조반니 안젤모   김주호   수미 지안구오	10
박헌열   스테판 발켄홀   류경원   김영원	11
강진식   실비 플레리   일리아 카바코프   전수천	12
하우메 플렌자   원인중   한상업   김인겸	13
이용안내	14
오시는 길	15

## 김포국제 조각공원은?

### '통일'을 테마로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테마공원 김포국제조각공원



김포시는 남과 북,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 접경도시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입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은 조각 작품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세계적인 미술가들이 모여 1998년에 조성되었습니다.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문수산의 아름다운 휴양림 속에 설치된 다니엘 뷔렌 등 세계적 조각가 14인과 국내 저명 작가 16인의 총 30점의 작품 속에는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김포시민의 염원이 깃들여 있습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은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예술 작품과 문수산의 휴양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세계 유일의 자연 예술 공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하시어 편안한 휴식을 즐기시고, 몸과 마음에 여유를 가득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 공원 안내도



### 1차 설치작품 (1998)

- 01 숲의 전설 | 스스무 신구
- 02 워크 2001, 자연속에서 | 우제길
- 03 숲을 지나서 | 다니엘 뷔렌
- 04 깃발 | 장 피에르 레이노
- 05 산들거리는 속삭임 | 고조 니시노

### 2차 설치작품 (2001)

- 06 불규칙한 진보 | 솔 르윗
- 07 메신저 | 조성묵
- 08 모던 - 자연 | 줄리안 오피
- 09 생활방식 - 습성 | 박상숙
- 10 회복된 유적 | 정대현

- 11 우리는 한가족 | 김방희
- 12 개화 | 유영교
- 13 회복된 낙원 | 신현중
- 14 바람의 장미 | 빔 델브와
- 15 양분된 반사우리 트라이앵글 |  
댄 그레이험



16 보이는 것 | 조반니 안젤모

17 우리에게 시작이 있다 | 김주호

18 메이드 인 코리아 | 수이 지안구오

19 천사와 나무 | 박현열

20 그림자인물 | 스테판 발켄홀

21 인간의 굴레 | 류경원

22 길 | 김영원

23 무제 | 강진식

24 무제 | 실비 플레리

25 두 얼굴 | 일리아 카바코프

26 자연과의 대화 | 전수천

27 쌍둥이 II | 하우메 플렌자

28 숲속의 유영 | 원인종

29 나는 정지된 소리를 듣는다 | 한상엽

30 목시공간 | 김인겸

## 작품 · 작가 소개



**01 숲의 전설**  
Legend of Forest, 1998

스스무 신구 Susumu Shingu, Japan  
Stainless Steel & PTEE | 420 X 420 X 450cm

양분된 날개는 바람에 의해 실 새 없이 움직인다. 모양은 같으나 서로 상이하게 움직이는 날개는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의미하고 있다. 날개는 한복의 소매 형태에서 따왔으며, 날개의 백색은 백의민족을 상징한다.



**02 워크 2001, 자연속에서**  
Work 2001, Within the Nature, 2001

우제길 Jaegil Woo, Korea  
Stainless Steel | 320 X 60cm X 12pieces

ㄱ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12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바깥면은 슈퍼미러 효과를 통해 자연의 모든 빛과 얼굴을 담고, 안쪽면의 일곱가지 무지개 색깔을 통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있다. 바람에 의해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의 확산을 의미한다.



03 숲을 지나서  
Passage Sous-Bois, 1998

다니엘 뷔렌 Daniel Buren, France  
Stainless Steel | 287 X 8.7 X 26cm

33개의 줄무늬는 독립선언문의 33인을 의미한다. 입구 쪽은 남과 북의 색을 중성화한 오렌지색으로 통일에의 염원을 상징하고, 출구 쪽은 통일된 그날의 희망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04 깃발  
Flag, 2001

장 피에르 레이노 Jean-Pierre Raynaud, France  
Stainless Steel | 523 x 375 x 1580cm

수평 이단으로 분리된 게양대는 외형에서 엇보듯 남과 북의 불균형의 모습이다. 그 위로 나란히 치솟은 두 개의 봉은 한민족의 동질성과 동시에 평행선으로 걸어가는 남과 북의 현실을 암시한다. 한민족의 상징이 두 개여야 하는가에 대한 작가의 물음을 담고 있다.



05 산들거리는 속삭임  
Breezing Whisper, 2001

고조 니시노 Kozo Nishino, Japan  
Titanium, Steel | 600 X 530cm

날개를 지탱한 삼각대는 둘이 하나가 되면 셋의 힘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힘을 바탕으로 비상하는 경쾌한 미래상을 키네틱아트를 통해 표현한 작품이다.



06 불규칙한 진보  
Irregular Progression, 1998

솔 르윗 Sol Lewitt, USA  
Granite | 620 X 200 X 500cm

피라미드형태는 수직과 수평이라는 우주공간의 논리를 통해 한 단계씩 올라가는 인간의 길을 암시한다. 정상에는 한 개의 벽돌이 기다리고 있다. 정상에서 만나는 하나의 의미, 그것은 통일에의 길이며 예술의 길이고 또 인간의 길이기도 하다.



07 **메신저**  
Messenger, 2001

조성묵 Sungmook Cho, Korea  
Granite | 100 X 120 X 100cm, 5pieces

우주 만물은 음양오행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동양 사상을 근간으로 다섯 개의 빈 의자가 놓여 있다. 의자는 우리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하며 내일への 희망이기도 하다. 통일의 그날까지 빈 의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08 **모던 - 자연**  
Modern-Nature, 1998

줄리안 오피 Julian Opie, England  
Aluminium | 450 X 510 X 17cm

현대 사회의 얼굴을 도식화한 작업이다. 시선의 각도에 의해 변화하는 이미지는 다양한 현대의 얼굴이며 이 같은 우리의 얼굴이 자연 녹지 공간과 얼마만큼 조화 혹은 대치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09 **생활방식 - 습성**  
Way of Life - Habit, 1998

박상숙 Sangsook Park, Korea  
Granite | 670 X 650 X 300cm

전통 주거형태인 온돌의 구조를 단순화시킨 조각이다. 온돌은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은밀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통일에의 길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이 가야 하는 필연적인 길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10 **회복된 유적**  
Restored Ruins, 1998

정대현 Daehyun Jeong, Korea  
Granite | 400 X 150 X 600cm

고대 토기를 연상케하는 이 작품은 뿌리에 대한 의식, 민족의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을 상징한다. 거꾸로 놓인 듯한 토기 모양은 분단의 현실이 비정상임을, 또 가운데 열린 사각의 창은 통일에의 욕망에 대한 표출이다.



**11 우리는 한가족**  
We are a Family, 1998

김방희 Banghee Kim, Korea  
Stainless Steel | 30 X 30 X 600cm

좌우로 길게 늘어선 원형의 돌기둥은 뿌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담고 있다. 자연과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크기와 굵기가 다른 다양한 걸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뿌리는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2 개화**  
Blooming, 1998

유영교 Youngkyo Yoo, Korea  
Steel | 470 X 470 X 310cm

기계적인 움직임을 통해 일정한 간격으로 상하 운동을 반복하는 이 작품은 분단 이후 계속되어 온 그러나 실리 없는 남과 북의 일방적 대화를 암시한다. 꽃이 피는 듯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통일이라는 내일への 희망을 담고 있다.



**13 회복된 낙원**  
Recovered Paradise, 1998

신현중 Hyunjoong Shin, Korea  
Aluminium | 500 X 300 X 600cm

두 마리 공룡의 대칭적 자세와 청룡의 대비는 남북의 대치 상황을 상징하고 있다. 비상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마주하고 있는 모습은 이루지 못한 통일에의 꿈을 상징하며 사라진 자연, 실낙원에 대한 향수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14 바람의 장미**  
Rose des vents, 1998

빔 델브와 Wim Delvoye, Belgium  
Bronze | 150 X 120 X 50cm

인체의 중앙부인 골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남과 북을 잇는 통일에의 메시지를 골반을 통해 표현한다. 중앙부의 회전 팬은 인간이 태어나 끝없이 땅을 떠나려 애쓰지만 결국은 땅에 묻힌다는 해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5 양분된 반사유리 트라이앵글**  
Bisected 2 - way Mirror Triangle, 2001

**댄 그레이엄** Dan Graham, USA  
Stainless Steel & Glass | 600 X 600 X 29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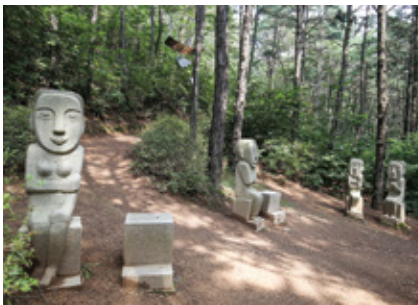
삼각 프레임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삼각구도를 의미하며 반원으로 나누어진 내부 중앙부는 서로 비추되 통할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을 설명한다. 반사유리를 통해 한 하늘 아래 비치는 풍경은 하나지만 서로 통할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



**16 보이는 것**  
Visible, 1998

**조반니 안젤모** Giovanni Anselmo, Italy  
Granite | 140 X 70 X 40cm

Visible라고 새겨진 왼쪽 부분은 절단된 상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의 INVISIBLE에서 IN이 잘려나간 상태를 말해준다. 보이는 것은 바로 분단의 현실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통일이라는 미래의 상황을 암시하고자 한다.



**17 우리에게 시작이 있다**  
The Beginning is from us, 2001

**김주호** Jooho Kim, Korea  
Granite | Human size X 8 pieces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인간애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민족의 분단은 결국 우리에게서 낯익은 몇몇의 얼굴을 빼앗아 갔고 그 사라진 얼굴의 빈자리에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빈 의자만 놓여 있다.



**18 메이드 인 코리아**  
Made in Korea, 2001

**수이 지안구오** Sui Jianguo, China  
Bronze | 150 X 74 X 210cm, 114 X 70 X 21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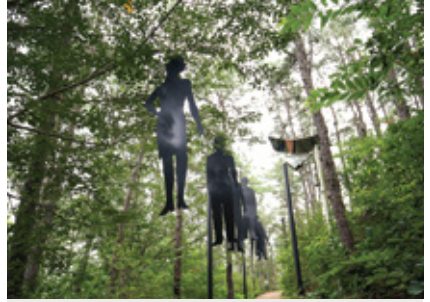
노랑과 빨강으로 채색된 두 마리의 공룡은 비교적 몸체가 왜소한 편이다. 이는 돌로 갈라진 민족의 힘이 그만큼 허약해져 있음이며 두 공룡의 힘이 합쳐져 한 마리가 되는 그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 즉 한국의 힘이 얼마만큼 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표현한 작품이다.



**19 천사와 나무**  
Angels & Trees, 2001

**박현열** Heonyeol Park, Korea  
Bronze | 260 X 260 X 350cm

일반적으로 천사는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본 작품의 반대편에 남자의 형상을 한 천사가 있다. 균형의 본질을 상실한 이미지와 남과 여라는 이질성과 천사라는 동질성을 통해 분단된 민족의 현실에 대한 근원적인 암시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20 그림자인물**  
Schattenfiguren, 2001

**스테판 발켄홀** Stephan Balkenhol, Germany  
Stainless Steel & Iron | 173-230 X 30-55cm

현대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를 조명하고자 한 작품이다. 분노의 세월 속에 동질성을 상실해 버리는 민족의 아픔을 높이를 통해 닿을 수 없는 사람들, 손을 내밀어도 닿을 수 없는 남과 북의 동포들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21 인간의 굴레**  
The Bridle of Human Being, 2001

**류경원** Kyungwon Ryu, Korea  
Marble & Stainless Steel | 80 X 45 X 200cm

창살 모양으로 짜인 틀 안에 분리된 인체는 구속인가 아니면 우리의 실체인가. 인간의 허상에 대한 물음으로서의 이 작품은 굴레에 갇힌 조각난 자유의 여신을 통해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질에 접근한다.



**22 길**  
The Road, 2001

**김영원** Youngwon Kim, Korea  
Stainless Steel & Bronze | 190cm X 3 pieces

세 명의 인간의 형상은 브론즈, 스테인리스, 나머지 하나는 이 두 가지를 섞어 제작하였으며 둘은 거꾸로 하나는 바로 서있다. 동일한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각기 다른 색깔로 살아가는 한민족의 얼굴이며 동시에 현대인의 복잡한 다양한 색을 표현하고 있다.



**23 무제**  
Untitled, 2001

**강진식** Jinsik Kang, Korea  
Stainless Steel | 540 X 350cm

하프 모양의 다섯 개의 스틸은 서로가 조화롭게 마주보며 지탱하고 있다. 남과 북은 마치 음과 양의 대립처럼 갈라져 있으나 서로가 맞물려 조화를 이루어낼 때만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 조화 속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있으며 그것은 통일을 향한 관문이다.



**24 무제**  
Untitled, 2001

**실비 플레리** Sylvie Fleury, Switzerland  
Bronze | 200 X 150 X 70cm

숲 속에 버려진 듯한 신발 한 짝은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을 단적으로 암시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숙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작품은 버려진 채로 남아 통일의 그 날에 다시 한 짝과 나란히 자리한다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



**25 두 얼굴**  
Two Heads, 2001

**일리아 카바코프** Ilya Kabakov, Russia  
Granite | 210 X 154 X 160cm

상단부의 얼굴이 온화한 자유세계의 얼굴을 그리고 있다면 측면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념이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의 얼굴이다. 사회주의와 자유세계의 삶을 체험한 작가의 경험적인 작품으로 한반도의 얼굴인 동시에 인간 내면의 얼굴이기도 하다.



**26 자연과의 대화**  
Dialog with Nature, 1998

**전수천** Soocheon Jeon, Korea  
Stainless Steel | 500 X 700 X 245cm

환경을 투영하는 예술과 환경의 조화에 대한 시도를 한 작품으로 중앙에 설치된 회전하는 마름모형은 인간의 방향에 대한 물음을 담고 있다. 내면으로부터 열린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이다.



**27 쌍둥이 II**  
Twins II, 1998

하우메 플렌자 Jaume Plensa, Spain  
Stainless Steel | 550 X 250 X 1,000cm

가장자리에 높이 솟은 두 개의 기둥에는 위치에 따라 "남"과 "북"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가로등 빛은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을 상징하고 있고 테이블을 덮은 흰색은 백인민족이라는 한민족의 단일성을 상징한다.



**28 숲속의 유명**  
Swimming in the Woods, 1998

원인종 Injong Won, Korea  
Aluminium | 600 X 120 X 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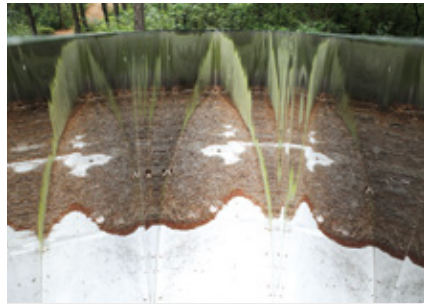
공간을 떠다니는 물체로 표현된 작품은 통일을 그리는 민족혼의 상징이며 정처 없이 떠도는 통일에의 꿈을 상징하고 있다. 표면에 칠해진 청색은 꿈과 희망에 대한 상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29 나는 정지된 소리를 듣는다**  
I hear still sound, 1998

한상업 Sangup Han, Korea  
Bronze | 800 X 150 X 500cm

휴대폰이란 인간의 의사소통의 필수인 만큼 남과 북의 대화에 대한 염원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알 수 없는 음성은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온 남과 북의 화합할 수 없는 목소리를 의미한다.



**30 묵시공간**  
Revelational Space, 1998

김인겸 Inkyum Kim, Korea  
Stainless Steel | 800 X 200 X 160cm

인간의 외면이 쉬이 더럽혀질 수 있는 백색의 공간이라면 인간의 내면은 맑고 투명한 세계라는 음악의 우주론적인 해석이기도 하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며 분단은 바로 인간으로부터 만든 비극이라는 의미이다.

